

보도일시

즉시 배포 가능

배포 2023. 12. 1.(금) 23:00

## 조홍식 기후환경대사,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계획 발표

-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추진 등을 통해 한국형 친환경 해운 솔루션 제공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정상회의(12. 1-2, UAE 두바이)’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 중인 조홍식 기후환경대사는 현지시간 12. 1.(금) 오후 정상급 행사인 「녹색 해운 :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주도(Green Shipping: Leading the Global Energy Transition)」 행사에서 미국, 노르웨이 등 10여 개국\*과 함께 녹색 해운 목표\*\* 이행 현황을 발표하였다.

\* 미국, 노르웨이, 한국, 덴마크, 프랑스, 가나 등 10개국과 선·화주 기업·단체 등

\*\* 향후 10년 이내 ①무탄소 연료 생산 및 벙커링 시설 등 인프라 구축, ②저·무탄소 선박 실증 및 도입, ③특정 항만 간 무탄소 선박을 투입하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등 협력

미국을 비롯한 14개국은 2022년 11월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 이집트)’에서 국제해운 분야의 ‘2050 탄소중립’을 지지하는 ‘녹색해운목표’ 실현을 선언하였고, 대한민국은 이 선언에 동참하면서 미국과 함께 한-미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해 나가기로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하여 올해 1월부터 10월 까지 부산항, 울산항, 마산항과 미국의 시애틀항, 타코마항, 에버렛항 간의 사전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양국 항만 간의 화물 흐름, 재생연료 가용성, 연료공급 기반시설(인프라)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사전타당성 연구 결과에 따라, 부산항과 타코마항 등 미 북서부항만 간에는 그린 메탄올이나 그린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다수의 무탄소항로 구축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이에, 조 특사는 이번 당사국총회(COP28)에서 열린 녹색 해운 목표 정상급 행사에 참석하여,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부산항과

미국 타코마항 등 북서부항만 간의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 결과와 향후 이행방안을 공식 발표하였다.

조 특사는 미국과의 녹색해운항로 구축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구 온난화에 지금 제동을 걸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남게 될 것”을 언급하며, “녹색해운항로 구축과 확대를 통하여 국제해운이 탄소중립을 목표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라고 강조하였다.

한-미 양국은 내년부터 경제·규제적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업·단체와의 협의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2028년 전후로 시범 운항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에서의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계획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G20(9월)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1월)에서 “우리의 친환경 해운 솔루션을 바탕으로 지구 각지의 녹색 항로를 연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의 향후 이행방안을 담은 후속조치로, 정부는 향후 한-미 녹색해운항로 협력을 바탕으로 호주,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과도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책임자	과 장	이창용 (044-200-5830)
		담당자	서기관	임병준 (044-200-5834)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	책임자	팀 장	조은정 (02-2100-7859)
		담당자	사무관	백세민 (02-2100-7750)